

영화 관객 사상 첫 2억명 돌파

1인당 4편 관람... 매출 1조5000억 넘을 듯 한국 영화 상승세 견인... '톱10' 가운데 8편

올해 영화관을 찾은 관객이 사상 처음으로 2억 명을 돌파했다. 우리나라 인구 5000만 명을 기준으로 1인당 영화 4편을 관람한 셈이다. 매출액 역시 사상 처음으로 1조 5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예매 관객 포함 누적 관객수는 2억37만1759명에 달했다.

지난 17일 현재 매출액은 1조4547억원으로 지난해(1조4551억 원)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벌써부터 예매 물풍을 일으키고 있는 송강호 주연의 '변호인', 공유 주연의 '용의자' 등 화제작들이 즐비해 1조5000억 원은 무난히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2억 관객 돌파의 일등공신은 한국영화다. 최근 10년간 매년 6000만~9000만 명 수준을 오가던 한국 영화는 17일까지 1억 1816만명을 모았다고 역대 최대 관객을 동원했던 지난해 기록(1억 1천461만 3190명)을 이미 지난해 돌파했다.

올해 최대 관객을 동원한 '7번방의 선물'(1281만)을 비롯해 올해 500만명을 동원한 작품은 8편에 달했다. '설국열차'(934만)와 '관상'(913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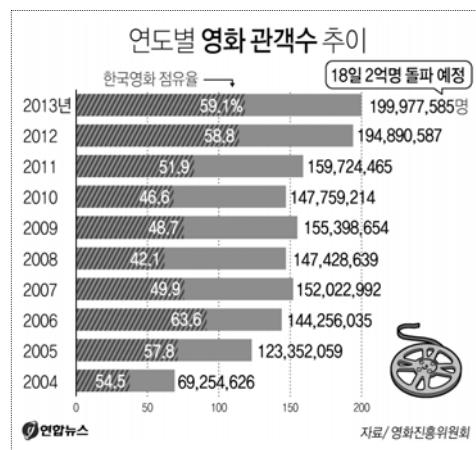
명) '베를린'(716만), '은밀하게 위대하게'(695만), '숨바꼭질'(560만), '더 테러 라이브'(557만), '감시자들'(550만)이다.

반면 지난해 5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는 '도둑들'(1298만) '광해, 왕이 된 남자'(1231만) '늑대소년'(665만) 등 3편이었다. 전체 순위에서도 한국영화가 압도했다. '톱 10' 가운데 '아이언맨 3'(900만)와 '월드워 Z'(523만 명)를 제외한 8편이 한국영화다. 매출액 점유율도 한국영화가 59.1%를 차지했다.

세대별로는 20~30대 관객이 성장을 주도했다. CGV가 '톱10'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5~29세 관객의 점유율은 18.1%로 1위에 올랐다. 영화 예매사이트 맥스무비 영화연구소에 따르면 특히 올해는 10대 관객이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나홀로 관객 역시 최근 10년 이래 올해 17%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영화 산업이 각광을 받으면서 제작편수와 영화 수입도 급증, 올해 개봉한 장편은 17일 현재 835편에 달한다. 지난해는 631편, 2011년은 439편이었다.

영화 관객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히트작에만



관객이 몰리는 양극화 현상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올해 한국영화 흥행 10위에 오른 작품의 매출 점유율은 33.5%에 이른다. 20위 안에 든 영화를 포함하면 점유율은 무료 56%에 달한다. 전체 개봉작의 2.4%에 불과한 20편의 영화가 총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가져간 셈이다.

그밖에 영화 스태프의 불안한 처우문제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영화진흥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영화 스태프의 연평균 소득은 탐장급이 916만원, 탐장 아래는 631만원에 불과했으며 최근 5년간 임금체불액은 56억원에 달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 시민소통 행정 돋보이네

행정서비스 만족도 상승 고층 민원 만족도 1위 주민소통 3년연속 최고 시민과 만남의 날 운영 사회약자 복지정책 확대

광주시가 역점 시책으로 추진중인 '시민과의 소통 행정'이 정부평가에서 연이어 전국 1위에 오르는가 하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만족도가 급상승하는 등 민관(民官) 소통의 성공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시민과의 만남의 날', '시민소통 경청투어' 등 광주시장이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형 소통 행정'은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에 나설 정도이며,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민원 해결정책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8일 광주시와 안전행정부, 국민권

익위원회,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등에 따르면 광주시가 외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민원인, 공무원, 정책전문가 등 3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11월 두 달간 시정에 대한 고객만족도와 정책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민원인 등 외부고객의 만족도가 94.3점으로 전년보다 1.1점 상승했다.

광주시는 또 지난 2일 국민권의 위원회가 발표한 '2013년 고충민원 처리실태 조사'에서도 2년 연속 전국 1위에 올랐다. 광주시의 고충민원 행정에 대한 종합만족도는 54.12점으로, 전국 평균인 44.83보다 월등했다.

최근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실시한 정부합동평가에서도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인 '가'를 획득했으며,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 전국 16개 시·도 대상 '공약이행 평가'에서는 주민소통분야 98.4점, 웹 소통 분야 100점으로 3년 연속 전국 최고인 'SA등급'을 받았다. 광주시는 연이어 성과의 비결로 민

선 5기 목표인 '시민 모두가 행복한 창조 도시 건설'의 실현을 위한 소통정책 확대를 꼽고 있다.

시는 민선 5기 출범 이후 매주 금요일을 강운태 광주시장과 '시민과의 만남의 날'로 운영해 총 151회 541팀 2672명의 민원(주민)인이 참여, 제기 민원 703건 중 87%인 612건을 수용·처리하는 성과를 냈다.

또 시민 제안에 따라 저소득층 급수공사비 미지급 등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개선했으며,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 정책에 대폭 확대했다.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도입한 '을을'을 위한 직소민원실과 '민원 After-Call 시스템'도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경미 광주시 민원봉사담당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행정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는데, 민선 5기 들어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달빛동맹' 광주-대구, 국비 확보 힘모은다

7건 5964억 공동 요청

광주시와 대구시가 '달빛동맹' 협력사업을 위해 내년도 국비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18일 국회에서 두 도시 기획조정실장과 예산담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달빛동맹 협력사업 예산이 내년도 국회 예정위 심의과정에서 추가 또는 증액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양 도시는 영호남 중심도시로서 SOC기반 확충사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국회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광림 의원

(새누리당), 최재천 의원(민주당)을 비롯한 두 지역 위원인 임내현 의원(광주 북을), 류성길 의원(대구 동갑), 홍의락 의원(민주당 비례대표, 경북) 등을 차례로 방문해 공동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국비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

광주와 대구가 달빛동맹으로 공동 연계·협력하기로 하고, 2014년도 국비지원을 요청한 사업은 7건 5964억원이다.

이 가운데 연계사업은 ▲국립과학관 운영비 지원 광주 50억원, 대구 70억원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광주 340억원, 대구 300억원, ▲88고속소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광림 의원

육성 광주 144억원, 대구 141억원 ▲도시철도 PSD설치 지원 광주 45억원, 대구 106억원 ▲충인처리시설 운영비 지원 광주 42억원, 대구 118억원(경비) 등을 차례로 방문해 공동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국비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

박병호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와 광주는 2009년 달빛동맹을 맺은 뒤 민간 교류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공고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국회 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광역연계 협력사업에 대해 원원 게임이 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복지재단 초대 대표이사에 서영진씨

내년 출범 예정인 전남복지재단 초대 대표이사에 서영진(64·사진)씨가 선임됐다.

전남도는 18일 "이날 전남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1명을 선임하는 안으로 이사회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 대표이사는 광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남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광주일보 편집국장 겸 주필, 일본 히로시마수도대학 객원교수, 히로시마대한민국총영사관 총영사 등을 역임했다.

한편 전남복지재단은 대표이사가 선임됨에 따라 오는 21일 직원 채용 필기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보훈회관 신축 개관... 8개 단체 입주

광주보훈회관이 18일 문을 열었다.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인근에 신축된 보훈회관(면적 2380㎡)은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국·시비 41억3000만원이 투입됐다. 대회의실·다목적실·전시실 등이 마련된 보훈회관에 대한상이군경회 광주시지부 등 8개 보훈단체가 입주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1면 '대선 1년'서 계속

2014년까지 대학 등록금을 실질적 반값으로 만들겠다는 공약,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2017년까지 전면 무상을 실현하겠다는 공약도 예산을 적게 배정하거나 아예 배정하지 않는 식으로 퇴보했다.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도 경실련으로부터 전체 18개 가운데 4개만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대통령의 멘토였던 김중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경제민주화에 대해 "그런 거 이미 다 있었고 이제 관심도 없다"고 평할 정도였다.

◇'외치(外治)'는 호평=대북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지적이다. 북한 핵실험과 개성공단 폐쇄 위기 등 압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결국 긴장관계가 완화되는 국면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최근 벌어진 방공식별구역(ADIZ) 논란과 관련해서는 미·중·일 간의 치열한 견제 속에서 끝내 큰 마찰 없이 이어도 상공까지 영역을 확대하는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KADIZ)을 발표하는 외교원칙을 보여주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미국 방문을 시작으로 모두 다섯 차례 해외 순방에 나서 주변국들과 안보 협력을 약속하고 '세월호 외교'를 펼쳐 외교 성과도 인정받는 분위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최대 ~80%
금리는 낮게 ↓ 최저 4.3%~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 | 금호지점 | 풍암지점

백운동 까치고개 (동아일보 사옥)

메디칼센터 임대 (병·의원)

2층 : 양·한방 입점 완료
3층 : 피부과·비뇨기과,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 입점 가능

넓은 주차장(80대주차가능) / 저렴한 임대비

문의 | 062) 651-6581
010-3690-7790

사람+금융=광주새마을금고

37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서민금융을 지켜온 광주새마을금고

대출 리모델링 전문

대출한도 개인 500억원
법인 1000억원
(중앙회 플러스 연계대출 한도 포함)

비율 최고 80%
취급대출 : 동산 및 각종 부동산 (중교시설 전문)

금 리: 최저 4.06%~

돈이 모이는 비과세 금융상품
세금없는 비과세 최고 7,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 3,000만원, 생계형 3,000만원)
광주새마을금고에 오시면 꼼꼼 미려가 보장됩니다.

MG 광주새마을금고
대표 본점: 361-3515 양동지점: 362-6164
전화: 각화지점: 268-6163 풍암금호지점: 651-6167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로 246번길 3

도대체 스피치 말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http://www.kleader.kr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어머니 스피치 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취업을 맞출 지원하는 **면접 준비 실전과정**

성공을 부르는 **스피치 리더십 과정**

명사 육성과정
강의 스킬을 배워서 강사활동을 하십시오

강사 파견 업무
각 분야별 명사를 파견해 드립니다.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062)222-2255 / HP. 010-9441-7000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